



스타일이 있는 가든 디자인 제안 23
 겨울까지 아름다운 정원 디자인

집은 내키는 대로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정원은 계절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즐길 수 있다. 꽃을 기다리는 셀렘을 주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는 행복한 정원. 가든 디자이너 강혜주 씨가 제안하는 정원 디자인 속에서 나만의 꿈을 찾아보자.

이곳은 한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의 물류창고와 연구동이 있는 신축 건물이다. 회사 대표는 뛰어난 디자인 감각의 소유자로, 샌드위치 패널로 짓는 보통의 창고 대신 붉은 벽돌의 빈티지하고 아름다운 물류창고를 기획했다. 그는 여기에 '겨울에 더 아름다운 정원'을 그려달라고 의뢰했다.

구상나무의 짙은 초록과 자작나무의 흰 수피, 여기에 노랑거나 붉은 목대를 갖고 있는 교관목을 더해 잎과 꽃이 진 겨울에도 아름다운 정원을 디자인했다. 건물의 전면부는 꽃이 없는 잔디 광장 개념에 대형 독일가문비 나무와 구상나무 한 그루씩을 포인트로 심어 단순미를 강조했다. 반면, 창고 안쪽으로 들어서면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풍성하게 식재한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사철 푸른 상록수인 황금실화백, 실버향나무, 에머랄드, 회양목 등 다양한 컬러와 질감이 도드라진 식재들을 선택했다. 아쉽게도 겨울 풍경은 추후에 소개하는 것으로 미뤄두고, 여름을 앞둔 정원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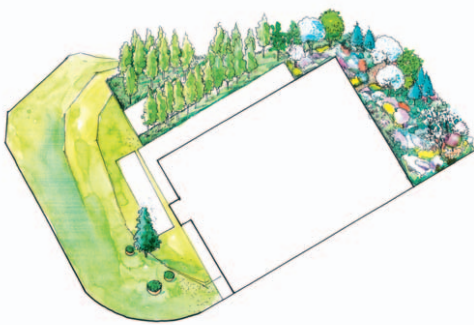
주변이 산림이 있고 화강암 축대로 둘러쳐진 환경이 좋은 공간이다. 화단 폭이 좀 더 넓었으면 볼륨감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원형 공간을 사이 사이에 두고 초화류와 그라스 식재 위주로 감상하는 정원이다. 축대와 가까운 쪽은 관목 위주로 식재해 뒤면 숲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다.



전면은 계단식 잔디 광장과 13m 높이의 독일가문비나무를 단독수로 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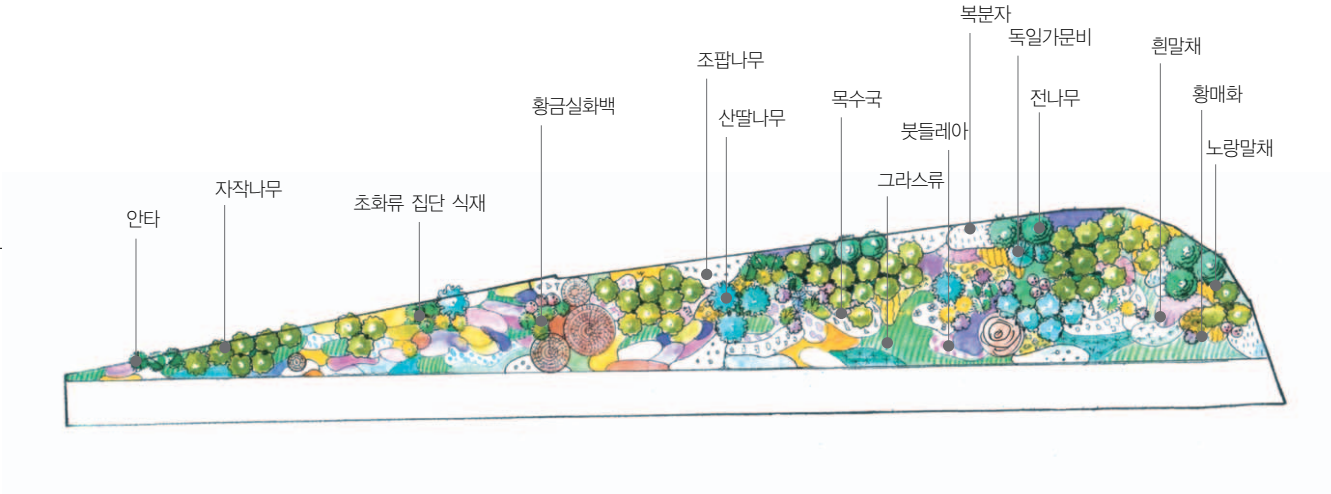
진입부 정원

전면부에는 전나무 하나로 포인트를 주고, 좌측은 자작나무 숲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연구동 안마당에 들어서면 정원에서 사계절 피는 꽃으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다.



좁고 긴 숲을 따라 걷는 안마당 정원

이곳은 겨울 정원의 포인트가 되는 곳이다. 구상나무와 자작나무의 컬러와 흰말채, 노랑말채, 복분자, 황매화의 꽃대가 어우러지고 검은 색 팔배나무들이 꽃과 겨울엔 수피의 컬러로 화려하다. 긴 공간 패턴에 단순함을 깨고 정원 장식품이나 쉼터, 보도라인 역할을 하는 원형 공간들을 두었다.



황금실화백, 코니카가문비, 둥근회양목, 실버함나무, 황금회화나무, 붓나무, 산목련, 꽃사과, 목단, 공조팝, 병아리꽃나무, 말밭도리, 미니목백일홍, 미스김 라이랄, 쉬땅과 볼두화가 풍성하게 피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다.



디기탈리스, 독일붓꽃, 작약, 속근셀비어가 보이고 디기탈리스가 지고 나면 그 자리에 피라고 심은 붉구근 백합이 꽃대를 튼튼하게 올리고 있다.

TIP _ 나무 수형 잡는 방법



나무는 옮기는 과정에서 뿌리분을 절단한 만큼, 가지와 잎도 자르고 흠어서 정리하는데 이를 T/R 맞추기라고 부른다. 앞에는 수분 억제제, 뿌리에는 뿌리 발근제 등을 넣어 이식 시 생육과 뿌리 활착을 돕는다. 가지치기를 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나무 수형은 심하게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도 다른 나무와 가깝게 붙은 쪽은 별을 받지 못해 가지가 별로 없고, 이식 과정에서 상한 가지도 많았다. 이럴 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쁘게 모양을 잡아본다.

1. 가지를 연철로 감아 당겨 유인한다.
2. 아래부터 위까지 고르게 전체적으로 수형을 잡아 고정한다.
3. 굵은 가지는 부러지지 않도록 목대쪽 굵은 부분을 연철로 돌려 나선형으로 감는다.
4. 소나무 수형 잡듯이 3~5년 철사걸이를 두었다 푼다.
5. 연철이 나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녹화마대 등으로 테이핑한다.



컬러감을 주는 식재로 **황금매자**, **홍매자**도 빠지지 않는다. **사계패랭이**의 컬러가 단연 돋보이는 시기다. 원형 바닥은 석축 앞쪽에 자리한 수돗가로 가기도 하고 뒷면의 정원 숲과도 이어지는 멋이 나는 공간이다.

황금매자, 사계패랭이, 금낭화, 독일붓꽃, 털 수염풀, 아케밀라가 모여있다.



디기탈리스, 델피늄, 독일붓꽃, 백두산황매, 뽕나무 등이 지고 나면 중투, 제브라, 흰줄무늬억새와 리아트리스, 에키네시아, 꼬리풀, 부처꽃, 숙부쟁이, 국화류가 피어날 것이다.



축대 쪽 화단은 연두색 줄기의 **황매화**, 수피가 노란 **흰말채**, 수피가 붉은 **붉은말채**, 검은 수피 **팔배나무**, 붉은 대에 흰가루를 덮어 쓴 **복분자**, 흰색 **철쭉**이 있는 겨울을 위한 관목 화단이다. ▲

시공 (주)플로시스 가든팁스 02-445-8890 www.flosys.co.kr



가든디자이너 · 보타닉아티스트 **강혜주**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던 중, 타사와 탐 스투어트 스미스의 정원에 마음을 빼앗겨 본격적인 정원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다. 꽃을 주제로 한 4번의 개인전을 열고, 주택과 상업공간 정원 뿐 아니라 공공장소 설치 디렉팅까지 다방면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포토월, 대구꽃박람회 주제관, 일산세계꽃박람회 초청작 등을 직접 디자인했다. 현재 가든디자이너 홍미자 씨와 함께 와일드가든디자인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031-966-5581 www.와일드가든.com wildgarden3@naver.com